<h1>나 혼자만 레벨업-51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qa80c529dba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51화</p>  
<p>마법사를 찾는 이유는 간단했다.</p>  
<p>'내 생각이 맞다면...'</p>  
<p>페널티 존에서 자신이 내린 결론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.</p>  
<p>두두두두!</p>  
<p>기사들이 맹렬하게 돌격해 왔다.</p>  
<p>진우는 침착하게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기사들 중 가장 앞에 오는 녀석의 어깨를 밟고 공중으로 도약했다.</p>  
<p>그러자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'마법사는?'</p>  
<p>...찾았다!</p>  
<p>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마법사가 하나 보였다.</p>  
<p>'역시!'</p>  
<p>아까 목격했던 것이 맞았다.</p>  
<p>잘못 본 게 아니었다.</p>  
<p>기사들에게 둘러싸여 간신히 손 하나만을 밖으로 뻗을 수 있었을 때, 진우는 그 좁은 틈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을 보았다.</p>  
<p>'...'</p>  
<p>바로 끊임없이 뭔가를 중얼중얼 캐스팅하고 있는 마법사였다.</p>  
<p>주문을 외는 마법사.</p>  
<p>언뜻 생각하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상황.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거기서 강한 이질감을 느꼈다.</p>  
<p>'그렇다면 어째서...'</p>  
<p>한 번도 마법이 날아오지 않았을까?</p>  
<p>공격은 오로지 기사들의 몫.</p>  
<p>마법사들은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고만 있을 뿐, 마법을 완성시켜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.</p>  
<p>딱 한 번.</p>  
<p>탐지의 시선이라는 스킬로 은신을 해제시켰을 때를 빼고.</p>  
<p>그리고 그때, 유일하게 근처에 있던 기사들의 움직임이 멈췄었다.</p>  
<p>처음엔 표적이 사라져서 멈춘 건가 생각했다.</p>  
<p>하지만 페널티 존에서 거대지네들을 사냥하는 동안 문득 중요한 사실 하나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.</p>  
<p>여덟 마리째인가?</p>  
<p>지네를 잡았더니 뜨는 레벨업 메시지에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을 때였다.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체력이 완벽하게 회복됐다.</p>  
<p>그런데 짧은 기쁨 뒤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뒤따랐다.</p>  
<p>'이렇게 쉽게 레벨이 오르는데, 거기선 왜 업이 안 됐던 걸까?'</p>  
<p>시스템은 레벨업의 회복 효과를 차단한다고 했지 레벨업이 되지 않는다고는 안 했다.</p>  
<p>실제로 보스방까지 가는 동안 5레벨이나 올렸었고.</p>  
<p>그런데 전직 퀘스트 도중에만 업이 되지 않았다.</p>  
<p>6분을 버티면서 거의 백여 기에 가까운 기사들을 파괴했었는데도 말이다.</p>  
<p>마법을 쓰지 않는 마법사들.</p>  
<p>경험치를 주지 않는 기사들.</p>  
<p>뭔가 위화감을 주는 두 집단의 행동을 따로 떼서 생각하지 않고 동일 선상에 올려놓는 순간!</p>  
<p>진우의 머릿속에 어떠한 가능성 하나가 새롭게 떠올랐다.</p>  
<p>'어쩌면...'</p>  
<p>어쩌면 거기 있었던 기사들은 전부 가짜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.</p>  
<p>마법사가 '탐지의 시선' 스킬을 쓸 때 기사들이 전원 멈추었던 이유는, 자신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캐스팅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.</p>  
<p>'내 생각이 맞다면!'</p>  
<p>지금부터 확인해 봐야 했다.</p>  
<p>진우는 자신에게 손을 뻗어 대는 기사들을 무시한 채 그들의 머리와 어깨를 밟으며 마법사에게로 달려갔다.</p>  
<p>'...!'</p>  
<p>자신을 발견한 마법사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다.</p>  
<p>캐스팅이 빨라졌다.</p>  
<p>그거 닥치는 대로 공격만 해 오던 기사들이 마법사를 지키려고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다.</p>  
<p>예감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 갔다.</p>  
<p>탁!</p>  
<p>진우는 마법사 앞에 착지했다.</p>  
<p>그리고 일체의 망설임 없이 오른손에 들린 단검으로 마법사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었다.</p>  
<p>'급소 찌르기!'</p>  
<p>푹!</p>  
<p>마법사는 소리 없이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.</p>  
<p>[마법사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그리고 그와 동시에!</p>  
<p>우르르르-</p>  
<p>진우를 잡으러 달려들던 기사들 수백 기가 일제히 무너져 내렸다.</p>  
<p>실이 끊어진 인형처럼.</p>  
<p>바닥에 쓰러진 기사들은 그저 주인 없는 갑옷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.</p>  
<p>'이게 답이었어!'</p>  
<p>진우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.</p>  
<p>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긴 끝에야 간신히 답을 찾아냈다.</p>  
<p>기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.</p>  
<p>기사들을 조종하는 것은 마법사들.</p>  
<p>그들을 처치하는 게 목표였다.</p>  
<p>'나이트 킬러(Knight killer)로 처음 처치한 게 마법사라니...'</p>  
<p>진우는 덩그러니 남아 있는 로브를 보고서 실소를 머금었다.</p>  
<p>웃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돌아왔다.</p>  
<p>하지만 계속 여유를 부리고 있을 틈은 없었다.</p>  
<p>아직 퀘스트가 끝나지 않았다.</p>  
<p>두두두두-</p>  
<p>바닥이 울리는 소리.</p>  
<p>진우가 돌아섰다.</p>  
<p>벌써 주위에 기사들이 까맣게 몰려와 있었다.</p>  
<p>기사들을 조종하는 다른 마법사들이 또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다.</p>  
<p>기사들이 덮쳐 들어왔다.</p>  
<p>진우의 오른손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.</p>  
<p>쉬칵!</p>  
<p>앞선 옆에 있던 기사들이 일자로 베어졌다.</p>  
<p>진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'와우!'</p>  
<p>280만 골드를 투자한 가치가 있었다.</p>  
<p>'나이트 킬러'의 칼날은 기사들의 아머를 종이처럼 쉽게 뚫고 잘랐다.</p>  
<p>단순히 톱니 모양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.</p>  
<p>대 기사용 전용 단검이라는 아이템 설명답게 '나이트 킬러'에서는 마법적인 힘이 강하게 느껴졌다.</p>  
<p>'상점표 무기도 좋잖아?'</p>  
<p>세간의 인식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.</p>  
<p>보통 상점표 무기라고 하면 쓸 만한 무기를 구하지 못했을 때 궁여지책으로 쓰는 것이라고들 생각하니까.</p>  
<p>'이러면 골드도 무시 못하겠는데...?'</p>  
<p>적어도 헌터 전용 무기보다는 훨씬 괜찮아 보였다.</p>  
<p>동시에 상점에서 무기를 사 헌터들에게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.</p>  
<p>소모품과 달리 무기에는 양도 금지란 설명이 붙어 있지 않았으니까.</p>  
<p>'집중하자, 집중.'</p>  
<p>아직은 딴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.</p>  
<p>기사들은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달려들었다.</p>  
<p>쉭! 쉬익!</p>  
<p>진우는 이리저리 피해 가며 놈들을 뭉텅뭉텅 썰어 갔다.</p>  
<p>하지만.</p>  
<p>'이래서는 끝이 안 나.'</p>  
<p>잠깐만 눈을 돌려도 베어 버린 기사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기사가 다가와 있었다.</p>  
<p>스걱!</p>  
<p>또 하나의 기사가 목을 잃었다.</p>  
<p>'마법사를 찾아내야 돼.'</p>  
<p>진우는 목을 잃은 기사가 쓰러지기 전에 놈의 어깨를 밟고서 다시 한 번 위쪽으로 뛰어올랐다.</p>  
<p>'은신!'</p>  
<p>스르륵.</p>  
<p>진우의 형태가 흐릿해져 갔다.</p>  
<p>물론 은신으로 몸을 숨기고자 함은 아니었다.</p>  
<p>진우가 노린 것은 바로.</p>  
<p>[마법사가 '스킬:탐지의 시선'을 사용합니다.]</p>  
<p>[마법사가 '스킬:탐지의 시선'을 사용합니다.]</p>  
<p>[마법사가 '스킬:탐지의 시선'을 사용합니다.]</p>  
<p>띠링, 띠링 귀가 따가울 정도로 사방에서 울려 대는 경고음 소리.</p>  
<p>진우는 기사들의 머리 위를 뛰어다니며 눈 모양의 마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했다.</p>  
<p>'마법사 숫자는 전부 다섯.'</p>  
<p>진우는 일단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법사를 노렸다.</p>  
<p>'...!'</p>  
<p>진우가 돌아보자 마법사가 황급히 기사들을 주변으로 끌어모았지만.</p>  
<p>쉬익!</p>  
<p>진우의 왼손을 떠난 '카사카의 독니'가 일직선으로 날아가 마법사의 이마 정중앙에 명중했다.</p>  
<p>콰직!</p>  
<p>[스킬: '단검 투척'을 배웠습니다.]</p>  
<p>[마법사를 처치했습니다.]</p>  
<p>우르르.</p>  
<p>또 기사들 수백 기가 쓰러졌다.</p>  
<p>'남은 건 넷!'</p>  
<p>진우는 기사들의 머리와 어깨를 밟으며 다음 표적이 있는 쪽으로 이동했다.</p>  
<p>흘깃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'카사카의 독니'에게 옮겨 갔다.</p>  
<p>새로운 스킬을 이용할 때였다.</p>  
<p>'지배자의 손길.'</p>  
<p>진우가 떨어져 있는 카사카의 독니를 향해 손을 뻗자 자석끼리 당기는 것처럼 단검이 알아서 되돌아왔다.</p>  
<p>'그렇지!'</p>  
<p>진우는 독니를 낚아챘다.</p>  
<p>일일이 단검을 회수할 필요가 없게 되니 동선이 최적화되었다.</p>  
<p>그다음 순식간에 다음 마법사 앞에 도착했고.</p>  
<p>'...!'</p>  
<p>마법사가 무슨 시도를 하기도 전에 놈을 사선으로 베어 버렸다.</p>  
<p>[마법사를 처치했습니다.]</p>  
<p>쓰러지는 기사들.</p>  
<p>이제 기사들의 수가 채 반도 남지 않았다.</p>  
<p>승기는 넘어왔다.</p>  
<p>진우의 눈이 번뜩였다.</p>  
<p>'이제 셋.'</p>  
<p>마법사들도 위기감을 느꼈는지 한 자리에 뭉치기 시작했다.</p>  
<p>마법사들만 모인 게 아니다.</p>  
<p>그들이 부리던 기사들까지 한데 뭉쳤다.</p>  
<p>곧이어 마법사들이 주문을 외웠다.</p>  
<p>음산한 목소리가 공동에 울려 퍼지더니 곧 하나의 마법이 완성되었다.</p>  
<p>우드득, 우드득.</p>  
<p>마법사들을 호위하고 있던 다수의 기사가 공업용 프레스에 들어간 것처럼 우그러들기 시작했다.</p>  
<p>그러더니 곧 하나의 거대한 철제 골렘으로 재탄생되어 진우를 노려보았다.</p>  
<p>우우우우-</p>  
<p>'장난 아닌데!'</p>  
<p>진우는 놈에게서 느껴지는 압박감에 순수하게 감탄을 터트렸다.</p>  
<p>하지만 무섭거나 하지는 않았다.</p>  
<p>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서 그런지 긴장보다는 도리어 기대감이 들었다.</p>  
<p>쿵, 쿵, 쿵!</p>  
<p>놈이 걸을 때마다 땅이 진동했다.</p>  
<p>엄청난 위압감이었다.</p>  
<p>부웅-!</p>  
<p>진우는 놈이 휘두른 주먹을 자세를 낮춰 가볍게 피해 냈다.</p>  
<p>콰직!</p>  
<p>주먹에 살짝 스쳤다는 이유로 진우 뒤쪽에 있던 기둥 하나가 반파됐다.</p>  
<p>'거참, 무시무시하기는 한데...'</p>  
<p>진우는 씩 웃었다.</p>  
<p>실체를 몰랐다면 이런 괴물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전전긍긍했겠지만 지금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.</p>  
<p>고오오-!</p>  
<p>골렘이 깍지 뀐 양손으로 바닥을 내려치려 할 때.</p>  
<p>진우는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'질주' 스킬을 사용해 앞으로 돌진했다.</p>  
<p>그리고 슬라이딩-!</p>  
<p>눈 깜짝할 사이에 골렘의 가랑이 사이를 빠져나갔다.</p>  
<p>골렘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진우는 무방비로 주문을 외우고 있는 마법사 셋 앞에 도착했다.</p>  
<p>'...!'</p>  
<p>'...!'</p>  
<p>당황한 마법사들의 어깨가 들썩거렸다.</p>  
<p>'체크메이트!'</p>  
<p>진우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들 하지만, 이번 경우엔 좀 달랐다.</p>  
<p>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처리하기가 더 수월했다.</p>  
<p>진우는 양손에 쥔 단검을 자유로이 휘둘렀고.</p>  
<p>[마법사를 처치했습니다.]</p>  
<p>[마법사를 처치했습니다.]</p>  
<p>[마법사를 처치했습니다.]</p>  
<p>세 마법사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.</p>  
<p>그리고 다급히 진우를 움켜쥐려던 골렘도 다시 갑옷 쪼가리가 되어 산산이 흩어졌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.</p>  
<p>'끝난 건가? 아니면 또 다른?'</p>  
<p>혹시나 모를 이변에 대비하고 있는데 기계음이 들려왔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진우는 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그러나 우려와 달리 시스템은 퀘스트의 종료를 알려왔다.</p>  
<p>[시험의 방 내부의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였으므로 전직 퀘스트를 종료합니다.]</p>  
<p>[잠시 후 직업이 결정됩니다.]</p>  
<p>[획득한 승급 포인트에 따라 상위 클래스로의 전직이 가능해집니다.]</p>  
<p>그제야.</p>  
<p>그제야 비로소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.</p>  
<p>"후-."</p>  
<p>어려운 싸움이었다.</p>  
<p>끝까지 즉시 귀환석에 시선이 팔려 있었다면 퀘스트 몬스터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.</p>  
<p>'도망칠 타이밍만 재고 있었겠지.'</p>  
<p>운 나쁘게도, 어쩌면 운이 좋게도 즉시 귀환석을 잃어버려서 전투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다.</p>  
<p>결과는 대성공.</p>  
<p>이제 그 대가를 받을 차례였다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타이머 쪽으로 이동했다.</p>  
<p>[04:29:16]</p>  
<p>타이머의 숫자가 고정되어 있었다.</p>  
<p>무려 4시간 30분을 버텼다.</p>  
<p>그게 전부가 아니었다.</p>  
<p>버티기만 해도 되는 퀘스트에서 몬스터를 모두 잡아 퀘스트 자체를 끝내버렸다.</p>  
<p>얼마나 많은 점수를 얻을 것이며, 그 점수로 어떤 직업을 택할 수 있을지 가슴이 떨려 오기 시작했다.</p>  
<p>[플레이어의 행적을 분석하여 합당한 직업을 부여합니다.]</p>  
<p>'그거 좋지.'</p>  
<p>여태까지의 행동으로 직업이 결정된다면 어울리지 않는 클래스가 걸려서 고생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다.</p>  
<p>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.</p>  
<p>[플레이어가 머무는 곳에는 항상 사신의 숨결이 깃듭니다. 플레이어가 지나가는 길에는 시체가 쌓이고,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.]</p>  
<p>...조금 표현이 과격하지 않나 싶었는데, 생각해 보니 마땅히 반박할 말이 없었다.</p>  
<p>'레벨업을 위해서라지만...'</p>  
<p>인던에 들어가면 더 이상 업이 안 될 때까지 몬스터를 때려잡았고, 던전에서도 숨어 있는 마수 한 마리까지 찾아내 숨통을 끊어 놓았다.</p>  
<p>또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헌터들과 싸운 적도 여러 번 있었다.</p>  
<p>사신, 시체, 피비린내.</p>  
<p>'어떻게 해석해도...'</p>  
<p>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암살자 클래스로 굳어지는 듯했다.</p>  
<p>[또한 플레이어는 강한 힘을 갈망하고 있으며, 동료에게 의지하지 않고, 자신의 힘만으로 길을 개척해 냅니다.]</p>  
<p>끄덕끄덕.</p>  
<p>진우도 시스템의 평가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.</p>  
<p>'애초에 믿을 만한 동료가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.'</p>  
<p>하지만 그게 왜 전직을 위한 성향 분석에서 언급되고 있는지 바로는 깨닫지 못했다.</p>  
<p>시스템의 설명은 이어졌다.</p>  
<p>[강한 힘에 대한 그대의 열망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망령들을 불러들일 만큼 강력하며, 그대의 명을 따르는 망자들의 군대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길을 만들 것입니다.]</p>  
<p>'...망자들의 군대?'</p>  
<p>진우는 그제야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 느꼈다.</p>  
<p>그러나.</p>  
<p>"잠깐!"</p>  
<p>뭐라고 항변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.</p>  
<p>시스템이 평소와 같이 담담한 어조로 통보하는 결과를 들어야만 했다.</p>  
<p>[당신의 직업은 '네크로맨서'입니다.]</p>  
<p>"...뭐?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